

	<b>보도설명자료</b>		
	배포일시	2020. 7. 23(목) 총 2매	
담당 부서 국제항공과	담당 자	• 과장 신윤근, 사무관 이호준, 주무관 홍창빈 ☎ (044) 201-4211, 4210	
보도 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우리 기업인의 출국 지원을 위하여 한-중 항공노선 운항확대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(KBS, '20.7.22(수)) >

- ◆ “표 살 테니, 대기업 전세기 한 좌석만” 중소기업 호소
  -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이 정기 항공운항 횟수를 대폭 줄이면서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져 우리 기업인의 출국이 어려운 상황
  - 특히,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전세기라도 확보하기를 희망

- **코로나19 확산 이후 한-중 항공노선이 대폭 감편·중단되면서 항공권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, 우리 기업인들이 중국 출국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,**
  - 우리 기업인들의 출국 지원을 위하여 중국 측과 지속 협의하여 최근 양국 운항횟수를 기존 주당 10회에서 최대 20회까지 확대하여 7월부터 추가 운항하고 있으며,
    - \* (3.29일 중측 운항제한 이후) 양국 주10회 운항 → (6.4일 중측 운항제한 완화 조치 발표 이후) 양국 주20회까지 운항확대 합의, 확대운항 추진 중
  - 중소·중견기업 등 대상으로 기업인 출국 수요를 파악하여 전세기 운항을 지원하는 등 외교부·산업부(무역협회)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비즈니스 목적의 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  - \* (전세기 운항절차) 무역협회 등 전세기 수요조사 → 출국필요 시기·지역을 구분하여 운항계획 수립 → 항공사 협의 → 한·중 항공당국 운항허가 → 취항

- 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관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항공운항이 제한되면서 단기간 내 대규모의 운항 확대는 어려우나,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사업장 출국 등 영업활동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더불어, 공항·항공기 소독 등 방역관리, 탑승객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조치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이호준 사무관(☎ 044-201-42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